대통령과 자장면 함께 먹는 사이

(창18:1~19)

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대통령과 자장면 함께 먹는 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대통령과 자장면 함께 먹는 사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명박 전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사저로 거처를 옮기신 뒤에 김 윤옥 여사님과 함께 동네에서 자장면을 배달해서 드셨나 봅니다.
(자장면이라고 하니까 영 짜장면 같지가 않네요. 저는 그냥 짜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짜장면을 비벼서 첫 젓가락을 입에 넣으시고, 이 명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맞아! 이게 사람 사는 맛이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느낌을 갖게 하는 한 마디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야!'
청와대에서는 사람 사는 맛을 전혀 못 느꼈다고 심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었던 분이 청와대에서 짜장면 먹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더군다나 동네에서 만드는 짜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셨으면 일류 요리사가 만들어 줬겠지만 이게 또 다르죠.
동네 짜장면 집에서 배달해 먹는 그 맛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 윤옥 여사님과 함께 드십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집무를 하고 있는 현재 대통령과 동네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20가지 코스 요리로 대통령과 점심을 먹은 사람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박 근혜 대통령에게 초청받아 청와대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20가지가 나오는 코스 요리로 먹었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요.
‘20가지 중에 뭐가 있었을까? 청와대 코스 요리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고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청와대에서 박 근혜 대통령하고 동네 짜장면 배달시켜 먹었는데”라고 합니다.
누가 더 센 겁니까?
어쩌다 초대 받아가서 20가지 코스 요리를 먹은 사람이 셉니까? 박 근혜 대통령하고 둘이서 동네 짜장면 시켜먹은 사람이 셉니까? 당연히 짜장면 먹은 사람이 셉니다.
도대체 얼마나 친하고 격이 없는 사이기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함께 짜장면을 시켜먹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켜먹는 것이 아니라, “박 근혜 대통령이 늦은 밤에 화장도 안하고 민낯에 추리닝 바지입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운전하고 와서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지요.
박 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화장도 안 하신 얼굴로 하하 호호 하시면서 사적인 일들을 털어놓으시고, 귤 까먹고 밤 까먹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 지만 동생네 집에 가서도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여호와인줄 모르고 나그네인줄 알고, 어디 멀리서부터 이 무더운 땡볕의 가나안 중동 땅을 걸어온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랴부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처음에는 나그네인줄 알았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도 안 들어간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어요. 프라이팬 같은 곳에 넓적하게 굽는 중동의 빵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칠고 뻣뻣한 그런 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송아지를 잡았다니까 굉장한 잔치를 벌인 것 같지요?
그 당시의 유목민에게는 짜장면 정도이고 라면 끓여먹는 정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몽골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부부가 저희 제로원(0,1)복음방송을 듣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옆 호텔에서 나오는 무선으로 겨우겨우 들으십니다. 어린 초등학생 두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분이십니다. 그 사모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가 마지막에 몽골에 오시면 양 한 마리 잡아 드리겠다고 쓰셨더라고요. 거기가 울란바토르에서 800km떨어진 벽촌 구석입니다.
우리 강릉 동네에서 흑염소 하는 집에서 탕을 먹으려고 하면 12,000원이에요. 못 먹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만 보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양 한 마리를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에 그리스 식당에 가서 양고기 한 번 먹으려면 13불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한 마리 잡아주시겠대요. 가난한 선교사님 부인이 무슨 양을 한 마리 잡겠습니까마는, 몽고에서는 양 한 마리가 배추 몇 포기보다 더 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지나칠까요?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음식을 차릴 시간도 없었고. 그 옛날 가나안 땅에서 무슨 대단한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유목민이었으니까 기르던 가축 잡고, 밀가루 떡이나 하고 그런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이거, 참 대단한 본문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이 본문이 가장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의별 기적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 천사도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顯顯)을 하고,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주가 무한하고,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고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또 태양계가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 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다 속의 물고기들, 이 육지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우주전체를 운행하시는 그분이신데, 지금 그 일은 휴업상태이거나 다른 존재에게 맡겨두신 채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는 것은 성육신 사건과 일치하는 사건은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박 근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도무지 상대가 안 되지요.
박 근혜 대통령과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강릉의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끓여서 같이 먹자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 강릉에 오시는 것도 대단하고 오실 수도 없고 오시지도 않을 것이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민들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시내산으로 끌고 오신 뒤에,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그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선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선택한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시는데, 어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금을 그어두라는 것입니다. 그 금을 넘어오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배설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십니다. 짜장면 드시듯이, 라면 드시듯이.
그리고 또 16, 18, 19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런 정도는 돼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면 다 죽어요. 연기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천군천사의 나팔소리가 들립니다. 이 정도는 돼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내려오신다는 것이 말이 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갑자기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나그네인줄 알고 대접하겠다니까 그래, 한 상 차려와 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로서는 라면 같고 짜장면 같은 것을 그냥 맛있게 드십니다. 아브라함은 옆에 서 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독하게 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영이신 인격체이십니다. 계시록의 묘사에 의하면 그분이 그렇게 장엄한 보좌에 앉아계시고 그분의 형상이 뚜렷하게 윤곽도 잡히지 않고 갖가지 값진 보석의 빛으로만 표현이 되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는, 박 근혜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에 초대해서 짜장면 시켜먹는 것도 굉장한데, 박 근혜 대통령이 밤늦게 몰래 강릉까지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친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서처럼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나고,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평범한 나그네처럼 불쑥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만든 라면 같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울 수 있어요. 박 근혜 대통령과 함께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짜장면 먹고 라면 끓여 먹듯이 그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는가?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보았듯이 17:19절에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사라에게 같은 내용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런데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똑같은 계획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웃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것에 대한 반응과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한 반응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웃었다고요?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다 보니 자기 삶에서 일어날 일들이 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에요. 남의 일로서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갖게 된다니 즐거운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마디의 나무람도 없으시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태어난 이스마엘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아브라함의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시기까지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상태입니다. 자기의 지상의 삶으로부터 마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친해지는 거예요.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하시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고 겁이 나서 안 웃었다고 하지만, 두 번이나 네가 웃었느니라고 하십니다.
좀 웃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것을 강하게 꼬집으십니다.
그럼 사라는 왜 웃었습니까?
사라가 웃은 이유는 그 말 자체를 비웃은 거예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웃은 겁니다.
이미 경수가 끝나고 남편도 늙었어요. 자기 몸 상태에 마음이 붙어 있다가, 몸의 상태로부터 마음의 느낌과 생각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친해짐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육체로 만나는 현실에 마음이 붙어있으면 반드시 현실과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생각이 주어지고 판단이 주어지고 말이 나오게 되고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선을 그어두시고 가까이

못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시콜콜한 모든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이 자기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서 1등 하실 수 있도록, 그 끌려가는 자기의 마음을 제단에서 죽이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마음이 항상 이 땅에서 떼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육체로 살게 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마음이 떼어져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보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에 가서 박 근혜 대통령과 라면을 끓여먹었다면, 박 근혜 대통령이 직접 여기까지 오셔서 라면을 끊여먹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같은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라면 끓여 드시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지상의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이 떨어져 나올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다 드시고 나서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갑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에 대해서 심판하실 계획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명박 대통령과 김 윤옥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에 두 분이 얼마나 친한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친한 사이의 특징이 뭐예요? 이 명박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줄줄 새듯이 김 윤옥 여사님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앞으로 내 삶 속의 영역에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줄줄이 새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느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여호와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그 여호와의 계획이 줄줄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공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직장에서 일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 가서 마음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원을 가는 이유는 기도원에서 만난 하나님과 동행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하기 위해 기도원을 가는 것이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걱정합니다.
'내가 마음을 떼어버려도 이 일이 제대로 될까?'
내가 마음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붙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돌보시고 계획을 갖고 계셨던 일들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생각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어떻게 이 정도로 친해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십니다.
사라처럼 자기 몸의 상태에 마음이 붙거나, 몸으로 만나게 되는 현실에 마음이 붙어있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제단에서 자기를 죽이므로 이 세상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면 되는데, 십자가 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것이에요.
왜?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나를 찾아오실 만큼 친해질 수가 있으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마므레의 상수리나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이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 세상의 내 삶으로부터 떼어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에서 거리를 두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내가 이 세상의 나의 삶에 대해서 친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났더니 그 하나님 속에 나의 이 세상의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속에 나라일 전체가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 속에 이 세상일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

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줄줄 새듯이 내 마음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생각대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공의와 진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짜장면 먹는 사이, 하나님과 함께 라면 끓여먹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사물과 대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이 죽어버려서,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빨리 라면 끓여라. 나랑 같이 먹자”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친한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친한 사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활화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만 하면 게임 끝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짜장면 시켜 드시고, 라면 끓여 드시는 그런 친한 사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육체로 만나는 이 지상의 삶에 대해 마음을 떼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줄줄 새듯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너무나 값지고 즐겁고 행복한 보석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